# 트램·미래산단·에너지·관광···전남, 시·군 균형발전 지원

김영록 지사 정례조회···균형성과담당관 신설 맞춤형 전략 추진 광주~영암 아우토반 연결·생물의약산업 육성·관광 개발사업 등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직제 신설을 포함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먼저 기획조정실에 균형성과담당관을 신설해 전남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 남도내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전남도민이 어디에 살든 평균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남도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전남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다 광범위하게

이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동부지역본부에 2급 본부장을 신설하는 한편 기획 조정실 내에 균형성과담당관을 둬 전남 22개 시·군 이 고루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권역별 주요 발전전략으로 ▲서부권은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가칭 대불산단대교와 연결해 목포까지 연결함으로써 서남권 관광의 새 판을 짜고, 목포 구도심~하당~남악~오룡 트램 황금노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또 ▲동부권은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광양만권의 첨단기 업 수요 충족, 여수 청정 수소산업 중심지 육성, 고 흥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육성 ▲중부권인 나주·화 순·장흥 등에 에너지와 바이오 생물의약산업 육성 ▲북부권인 곡성·구례·담양·장성 등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내륙관광 거점도시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도내 균형 발전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관광 인프라와 관련 프로젝트가 잘 정비된 동부권과 전남도청이 자리한 남악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등각종 기반시설이 집중돼 있는 서부권에 비해 북부권, 중부권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내 불균형 발전을 지적하며 지난 2020년 10월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중 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전남도가 선정해 추천하는 사업 또는 전남도에서 직접 공모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균형발전지표'에 의거, 가감점을 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모 사업을 집중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조례는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 또 공모사업만이 아니라 전남도의 각종 신규 정책 및 사업도 인구 소멸 가능성이 높은 군 지역에 우선 실시되도록 전면 개정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 린 6월 정례조회에서 "동부지역본부 2급 본부장이 신설된 만큼 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가 잘 이뤄지 도록 하고, 특히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 중부, 북부 등 권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동부지역본부 개편과 관련해 "당초 언급됐던 해양수산국을 남기고, 일자리투자유치국과 문화융 성국을 확대해 옮기도록 한 것은 기술부서만 집중하지 않고 행정직을 충분히 배치해 종합행정서비스를 하고 시군(동부권) 직원의 전입도 활성화하기위한 것"이라며 "본부장이 총괄조정기능을 잘 수행하길 바라고, 이전 직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른 발전도 중 요하다"며 "이를 통해 22개 시·군 모두가 잘 사는 생 명의 땅 전남, 첨단산업·문화 융성 융복합 사회로 미래를 활짝 열자"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 코리아가든쇼 개막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순천만가든마켓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영태 국립수목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가든쇼 개막 테이프컷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 전남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전국 최다

벼 대체 작물 전환 선도…5만5133ha 지원액 433억원

전남도가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마감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5133ha를 신청받아 지원액이 43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에선 13만2240ha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전남에선 5만5133ha를 신청해 전국 42%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2만5157ha, 경남 1만1802ha, 경북 9185ha, 충남 5208ha 순이었다.

작물별로 동계작물은 4만9052ha로 이 중 사료 작물이 3만5645ha, 보리, 귀리 등 1만656ha, 밀 2751ha 등이었다. 하계작물은 콩 2402ha, 사료 용 곡물 2909ha 등 총 6083ha다.

특히 청년 농업인 신청이 눈길을 끌었다. 연령 별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청년농이 14%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40대 이하(3.8%)보 다 3.7배나 높았다.

전남도가 2030년까지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청년창업 및 정착, 문화, 복지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시 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직불 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 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신청 작물의 적기 파종 및 재배관리 철 저"를 당부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7월부터 9월까지 영농 이행 실태 등 점검을 통해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 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복지연구원 '직원 업무 중복' 방치

2017년 지적 받고도 6명 개선 안돼…감사위, 市에 경고 처분 요구

광주 복지연구원이 직원들의 업무중복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연구원은 2009년 2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으로 출범한 뒤그해 6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2010년 4월 효령노인복지타운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 협력관, 1처, 2본부, 1센터 직제로 81명 이 근무 중이다.

복지연구원은 2017년 감사에서 17명이 인사, 복무 등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지적받고도 11명에 대해서만 조치하고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례로 연구원 사무처에서 통합해도 될 업무

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에도 담당자를 배치하는 식이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미 같은 지적을 받고도 기능, 사무업무 등을 개선하지 않은 복지연구원장에게 경고처분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 직 지침에는 채용 형태별로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복지연구원 은 임시인력, 공무직 채용 절차와 방법을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채용 규정 등도 운용했다. 이밖 에도 수의계약, 예산집행, 유연근무제 운용 과정 등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전남도 명시·사고 이월액 지난해 37% 늘어"

### 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민주·강진) 전남도의회 의원은 "전남도 의 이월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4일 밝혔 다.

차 의원은 지난 2일 도의회 제 372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2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 승인과 관련,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이월액이 1679억원(98건), 사고이월액은 338억원(6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 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로 넘기 는 것이며, 사고이월이란 해당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 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제도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사고 이월액은 2017억 원으로 전년 도(2020년) 1260억원에 견줘 37%나 증가했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차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운 데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연말에 이월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 라며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